

# “엄마, 미술관이 즐거워요”

## 국립 현대미술관 ‘우리가족 미술여행’ 큰 인기



“엄마랑 미술관에 갔다. 무슨 그림을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엄마는 감상문을 쓰라고 하신다. 무얼 쓰지? 미술관은 정말 따분한 곳이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미술관에 갔지만 혹시 아이들이 일기장에 이렇게 쓰지는 않을까?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오광수) 어린이 미술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작품을 보고 만들기도 하는 ‘우리가족 미술여행’을 열어 놓았다. 1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0 가족 모집에 450여 가족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 들어 가장 추웠던 3일, 오전 10시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다섯 가족이 한 조가 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미술

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어린이 미술관에 전시된 포레들의 그림과 화가들의 작품을 본다. 백남준의 ‘선’, 앤디 워홀의 ‘지화상’을 앞에 두고는 엄마 아빠들의 질문이 더 많다. 사실화부터 반구상화,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들지만 정작 아이들은 작품을 보

“미술관도 재미있는 놀이터”  
아빠·엄마 손잡고 미술품 감상  
“털실·배추로도 그림 그려요”

고도 알쏭달쏭한 얼굴이다. 그래도 정점식씨의 ‘바위와의 대화’란 추상화를 보고는 “저건 바위그림이야”라고 단번에 맞춘다. 한 시간 가까이 전시실을 돌아보는 일이 계속 되자 드디어 아이들의 이내 심이 바닥을 드러낸다. “엄마, 그림은 언제 그려요?”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다시 어린이

미술관에 모였다. 오늘은 배추와 연근, 털실과 색모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골라주 기법의 판화를 찍는다.

아이들이 정한 주제도 ‘숲 속의 아파트’, ‘사랑나라’, ‘해저도시’ 등 다양하고도 기발하다. 지윤이(7학년)는 매일 힘들게 청소하는 엄마를 위해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에 풀이 묻고 색모래가 날려도 마냥 재미있고, 깃털이나 은박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어린이 박물관 강사 박준수씨는 “재료를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되므로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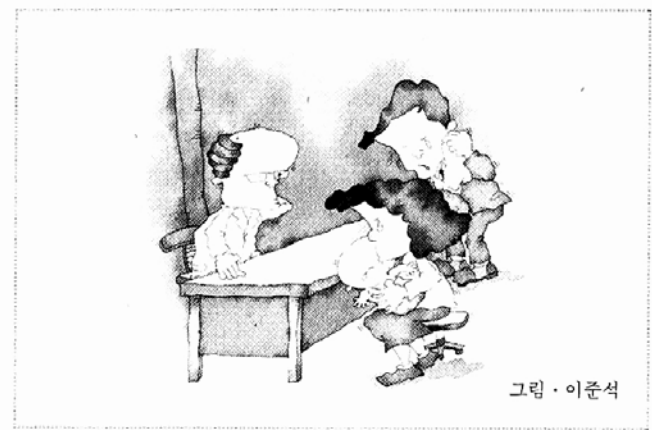
부지런히 재료를 오리고 붙이는 아이들 곁에는 아이의 작품을 낚을 액자를 만드는 엄마들의 숨씨자랑이 한창

여성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ha.com

#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 불교와의 첫 인연 ①



그림·이준석

## 청천벽력... 둘째아이 불치병 진단 큰스님 행장기 읽고 평은 되찾아

나는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기 가지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왔고 그런 생각이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첫 아이 서운이를 낳았다. 서운이는 참 이쁘고 총명하게 자라 주었다.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서운이를 보면서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1년 7월 16일 둘째 아이 정여가 태어났다.

정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 주었다. 몸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우리 부부는 밤새 울었다. 태어난 아기를 보니 간밤에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상이 가깝게 태어났다. 단지 머리만 상대적으로 크고 머리카락이 좀 더 많고 짙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성장과 발육이 정상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자주 큰아이의 머리둘레와 작은아이의 머리둘레를 비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느라 부지런히 서울로 다녔기 때문에 아기의 성장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끝나고 울산에 도착한 날 밤, 집사람이 내일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서 진단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니 서울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을 겸해 서울로 와서 아기의 정밀 진단을 받았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온갖 시험용 주사를 놓고 동굴 같은 촬영기에 아기를 넣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던 기억은 지금도 도저히 글로 쓸 수가 없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하니 역시 연골무형성증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이 병은 머리 앞뒤로 지나치게 크고 손가락, 발가락 등이 짧으며 성인이 되어도 키가 120~1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병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방법은 없다고 한다.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었다. 울산에 돌아오기부터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닦혔다. 집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집사람은 점점 더 매사에 의욕을 잃어 갔으며 급기야는 아파서 드러눕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윤병국 교수님을 통해 한마음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연구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을 방문해서 해안선원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나는 스님께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집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았다. (계속)

김규현(울산시 남구 무거동)

## 2002년을 뛰는 불교여성단체

2000년 창립 이후 정체성 확립과 조직 강화에 힘써온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지난해에 이어 여성불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리더십 개발 교육에 집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대중성 확보를 시도한다. 또 사찰 신도회와 연계해 다

- 불교 여성개발원 신도회와 연계 가정을 수행공동체로
- 부산 여성불자회 부산 아시안게임·월드컵 성공 기원
- 제주 여성불교단체 법인등록 추진·독거노인 음식공양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담은 ‘여성불자선행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불교사회장례문화와 제사의식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어 수행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들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소장 김묘주) 산하 행복가정상담소는 ‘정부 인증 100시간 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전문상담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혼예방센터에서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초

성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여성불교단체(회장 홍영선)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주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법회를 열 예정이며 단체의 법인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부타클럽과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연계해 2002 월드컵 자원봉사단을 구성, 봉사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독거노인 음식공양과, 양로원 목욕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청소년 단신

### 스트레스 무용치료 강좌

우리는 선우에서는 17일부터 ‘무용치료’ 강좌를 연다. 무용치료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기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감정과 정서를 순화하는 소리치료의 한 분야로,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 5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회에 1만원이다. 방향을 맞춘 자녀와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진행한다. 0212278-8672

### 강아지 소재 어린이극

예술의 전당에서는 ‘겨울방학 우수 어린이 연극 시리즈’로 강아지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연극을 자유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 권정생씨의 동화를 연극화한 ‘강아지똥’은 강아지 똥이 자신의 몸을 녹여 민들레꽃을 피우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비언어 연극이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4일부터 16일까지 공연한다. 매일 오후 2시, 4시(월요일 공연 없음)

극단 <성시어터라인>의 뮤지컬 ‘춤추

는 강아지’는 1997년 서울국제어린이공연예술제 최고인기상을 받기도 한 작품으로, 애완센터 ‘강아지 천국’에서 못생겼다고 따돌림 받던 누렁이가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표현했다. 19일부터 31일까지 공연. 매일 오후 1시, 4시(월요일 공연 없음) 021580-1300

### 종로에 종이박물관 개관

고려시대 다리나경에서 조선시대 색봉투에 이르는 ‘종이문화재’ 200여점을 전시한 종이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계성제지(회창 최낙철)가 창사 35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세운 이 박물관은 ‘옛종이류관’ ‘간찰(簡札, 편지류관)’ ‘교지(敎旨, 임금의 명령)류관’ ‘생활문화관’ ‘지공예관’으로 구성돼 있다. 1월까지는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다. 0213672-1188

### 무료 토요일 영화 감상회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토요일영화감상회’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1월에는 ‘국제영화제 수상작품전’으로 5일 ‘포레스트 검프’, 12일 ‘글래디에이터’, 19일 ‘여름 속의 댄서’, 26일 ‘사인’을 상영한다. 03112188-6065

**도서출판 참수행**

##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살과 죽음, 온갖 번뇌 망상과 괴로움, 이 모든것을 초월적 참수행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연구한 참행복을 얻는 목적이 있다.

각권 10,000원 / 윙정지음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chamsuhaeng.co.kr  
E-mail: champyc@chamsuhaeng.pe.kr

**권대장 불교 건축**

- 사찰 대응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향토방 시공

※ **틀사 하실스님 상담 환영**

**권대장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특별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일어시는 지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정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복 합장

## 破門(絶縁) 公告

梵魚寺 淸風堂 仁覺師

위 사람은 所爲 師僧인 본인과 이미 오래 前부터 僧伽와 宗團形成의 基礎 秩序에 根源이 되는 最小單位인 師第 間에 位階秩序마저 餘地없이 破失되었 음에도 不拘하고 본인은 累年間 長考 하여 왔으나 不得已 今般에서야 破門 絶縁을 斷行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事實을 公告합니다.

2001年 12月 31日

梵漁寺內院 釋能嘉 合掌

**간** **헛개나무 열매로 간염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 헛개나무 열매 입증 발표

2001.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신물질 개발

숙취와 위장에 좋은 헛개나무열매(지구자) 배강국

나천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헛개나무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임 2%, 첨 1% - 국내산 100%

헛개나무 열매(지구자)를 무색소 무방부제 우형가죽을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헛개나무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